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물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 육성과 병행

농림수산물부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 도축장 등을 통폐합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패커(Packer) : 도축·가공·유통 등을 일관해서 처리하는 업체

최근, 방송에서 지적되고 있는 도축장 위생 문제는 영세한 도축장들이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도축물량 확보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치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87개소의 도축장(79개소 영업중)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고, 그 결과 위생적인 도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 도축장 가동율 : 소 32%, 돼지 59%

실제로 국내 도축장의 부채비율은 약 80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육가공업 평균비율인 25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도축장은 냉방시설 유지와 세척 등에 필요한 전력·연료비가 총 경비의 20% 정도 소요되지만, 영세한 도축장은 비용절감 문제로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의 위생수준·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9월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금년도분 거점도축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5년 이후에는 전체 도축장 수가 36개 내외로 운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에서 식육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생 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전국 도축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은 수시로 기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HACCP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도축장 위생감독 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장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며,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Packer)를 육성하여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대형 패커로 육성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평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전담하고, 지역축협 등은 산지조직화의 주체로 축산물 공급을 전담하며, 안심축산은 유통과 판매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협 안심축산사업 시장점유율 점진적으로 확대
 · (한우) (10) 8.3% → (15) 50, (돼지) (10) 0.5% → (15) 18
 이를 위해 수도권에 안심축산의 핵심 가공,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농협의 공판장과 가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권역별 안심축산 공급 기지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진청, 축산 유용 미생물 배양 교육 실시

유용미생물 항생제 대체, 친환경 축산에 활용

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정



규교육과정으로 '축산 유용미생물 배양과 활용'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19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실습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축산농가에서 이용되는 미생물의 배양, 보존, 활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처음 미생물을 접하는 관련공무원들에게는 미생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미생물 보급사업을 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에게는 평소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현장활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축산현장에서의 기술 전파에 도움이 됐다.

최근 유용미생물은 무항생제와 친환경축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료효율 개선, 항생제 대체,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축산현장에 적용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년간 150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약 60여 개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황보종 연구관 인명사전 등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황보종 박사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인명사전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2) 29판에

이름을 올렸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인명사전으로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황보종 박사는 1990년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가금영양생리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여년간 가금영양생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여왔으며, 04년부터 한국동물자원과학회 국제협력위원으로, 06년 한국가금학회 학술상, 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등 관련분야의 활동 및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 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 안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문·격려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으며,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인 '사랑의 집'에 온누리 상품권과 과일 등 60만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위문금은 기준원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하여 지난 6개월동안 급여의 우수리를 모아 만들어진 성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추석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전직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였다.

기준원은 앞으로도『사랑나눔 봉사단』활동과 지속적인



위문금 마련을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문화 및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개장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장식이 지난 9월 20일 고양유통센터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고양시 및 농협 관계자, 관내 학교장·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장식 테이프 컷팅에 이어 참석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급식을 시식해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급식센터는 농협고양유통센터 내 990㎡ 규모로 위생실, 전처리장, 포장실, 냉장·냉동창고, 분류장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 관내 74개 초등학교에 쌀을 공급하고, 26개 초등학교에는 농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전·신선 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